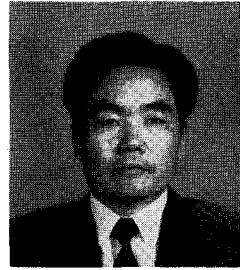


채란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천 강 균

- 본회 채란분과위원장
- 애농원 대표

수 평선 저 끝에서 웅장하게 떠오르는 빛, 불타오르는 붉은 태양과 함께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시작된 뉴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은 이룸하여 희망과 대변혁의 세기가 열리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전국의 양계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희망찬 포부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새해 아침 인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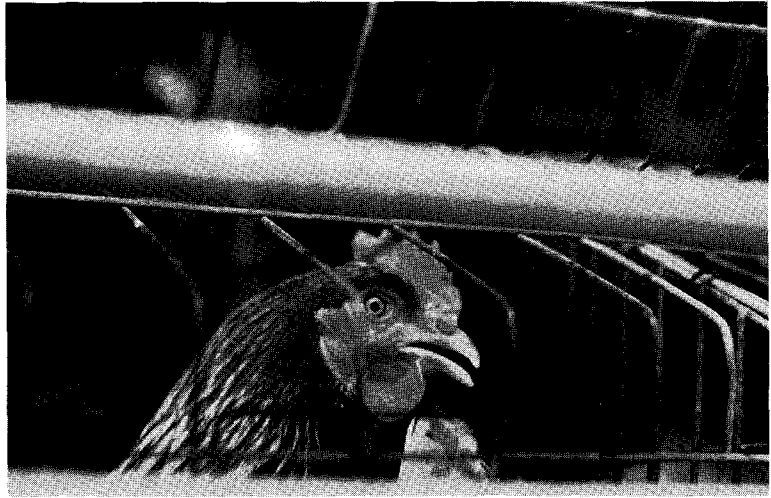
새해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과 적자로부터의 탈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의 첫호에 특집 기고를 할 수 있는 영광에 앞서 밝지 않는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볼 때 마음이 무거움을 느낀다. 아무래도 새천년이 시작되는 초두부터 우리 양계업자들에게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설 것 같다. 과잉생산에 따른 저난가의 지속은 말할 것도 없고 소비 위축이 가져온 이중고 또한 염려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양계 업자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는 이제 완전 경쟁 시대에 돌입하였다. 작년 한해는 채란 업계에 엄청난 충격이 컸던 해였다.

예전엔 생각지도 않던 원란(Table egg, 또는 Shell egg)이 2월 10일 경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여 국내 계란 시장의 가격의 고하에 관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 계란을 막으라고 야단들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보는 사람들은 수입 계란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WTO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문의 빗장 뿐 아니라 안방의 문고리도 잠글 수 없게 된 것이 WTO인 것이다. 세상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세계와의 경쟁을 이겨내는 슬기로우를 터득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부들에게 우리 계란만 사 먹으라고 강조할 수도 없다. 값싸고 품질이 좋을 때만 통하는 얘기다. 값비싸고 품질이 뒤떨어진 계란을 사 먹으라고 억지를 쓴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저난가 시대에 양계인들이 대처할 방안에 대하여 얘기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가격 경쟁력 제고

1) 생산 코스트를 낮추고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생산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료비의 절감이며 사료비의 절감 방법은 가능한 범위에서 현금이나 선수금 조건으로 구매하여만 외상 구매 때보다 4~8%이상의 싼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은 회사를 마음대로 골라서 바꿀 수 있고 농장의 신용 등급도 상향 될 것이다. 계란의 수익률을 따져본다면 외상 구입으로 농장을 경영하면서 숫자만 늘려서야 사료 업자의 하수인 노릇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생산지수를 높여서 바깥 세상의 농장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의 현실을 270~280개 정도일 것이다. 이 정도로는 고난기의 시대에는 수지가 맞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최소한 290개 이상 되어야 하

고 선진 양계 나라의 목표치인 330개까지는 못가더라도 산란지수 300개 까지만 이라도 목표치로 삼고 농장 경영 개선에 힘쓴다면 수입 계란에 대한 경쟁력과 저난가 시대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2. 질병으로부터 해방

1) 질병은 농장 경영의 만사를 망치게 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현금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질병을 차단하지 못하면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고 이미 가격 경쟁력을 상실케 되고 만다. 질병 차단은 오로지 사전 예방밖에 없다.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방역 소독을 농장 관리의 제 1신조로 삼아야 한다.

2) 구충구서를 완전 무결하게 하자.

구충과 구서를 제대로 못하면 질병 전파의 매개체를 차단하지 않는 것과 같고 값비싼 사료의 허실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차단하자.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적극 차단하고 부득이

한 경우 반드시 소독을 시키고 신발과 의복을 준비해 두었다가 갈아 입히고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료차와 닭차의 출입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당장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세일즈맨(사료, 약품, 계란, 병아리 기타 판매원)들의 농장 출입도 절도 있게 막아야 한다. 이 농장 저 농장 다니는 사람들이므로 겉옷만 번지르 하게 입을 뿐 가장 위험한 질병의 전달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과학적인 경영자의 조건

농장 하면 그저 그런 식으로 하던 시대는 끝나 가고 있다. 뉴 밀레니엄 시대는 숫자만 연도가 2000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처럼 인간의 사고력과 기술이 급변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 정신 못 차릴 만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신시대에 적응할 능력(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대열에서 낙오되고 만다.

과학적 경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열거해 보자.

1) 농장은 필수적으로 컴퓨터를 갖추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컴퓨터를 모르고서는 농장 경영 분석이라든가 자료정리등이 어렵게 되고 새로운 정보의 취득은 물론 활용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경쟁 상대에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양계인 이라면 과거처럼 땀흘리고 일만하면서는 세계속의 주역 노릇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조속히 컴퓨터를 배우라고 강조하고 싶다.

2) 생산물의 판매 마인드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자.

생산만 해 두고 상인이 팔아 주기만을 기대해 왔다. 어떨 때는 가격도 모르고 계란을 내주고 며칠이나 몇 달 뒤에 계산서를 받는다? 과연 경영자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생산물 가격은 스스로 자신있게 정하여 판매하고 자신의 능력만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3) 식품의 안전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자.

국민들의 건강 의식이 고도로 발달되고 장수에 대한 욕망이 커 가므로 식품의 안전성이 훼손된 농축산물은 아무리 우리의 것이라 해도 기피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겉모양의 청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내용물에도 항생제의 잔류라든가 살모넬라균의 검출등 각종 세균성 병원체가 검출이 되지 않도록 고도의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하여야 한다.

4.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농림부와 양계협회 그리고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기관으로써 과감한 투자와 강력한 통제력을 갖추고 양계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투자를 하여야 한다.

① 질병 차단 of 지휘 본부는 농림부가 명예를 걸고 산하 검역원이나 가축위생 시험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활동과 사법권적 권한을 갖고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② 종계장의 기준을 강화하여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종계의 부실한 관리는 국가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율에만 맡길 사한이 아니다. 오늘날 질병의 천

국이 되버린 우리 나라의 양계장은 국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③ 사료 품질관리를 철저히 강화하여 생산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불량 사료 생산

공장을 일벌백계하고 사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양계협회는 생산자 권익 단체로서의 그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업계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의 위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 생산 농가와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는 일은 계란 가격 발표이다. 그러나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계란 가격 결정 방법은 모순 투성이다. 가격 결정은 전국계우회 이름으로 소위 난가조절위원회라는 한두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협회 도지부에서 결정하고 어떤 곳은 양계협동조합에서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받지도 못하는 가격을 생산자 가격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반성하여야 한다. 지방에 따라서 무려 10원~20원씩이나 더 붙여서 가격이라고 결정하여 발표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협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계란 가격은 협회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협회가 고시하여야 한다. 생산자 단체는 생산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회는 뭐고 전국계우회 협회는 무엇인가. 이제는 완전히 화학적 융합이 이루어 질 때가 됐는데도 별개의 이름만의 조직으로 양존 하고 있다. 협회의 이름으로 하

나 계우회 이름으로 하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솔직해지고 용감해지자. 조직을 일원화하여 영성한 허구성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

3) 협동조합은 양축가의 구판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축산업 협동조합은 지나칠 정도로 신용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 조합사업의 본질인 생산원자재의 공동구매와 생산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중간상인의 착취와 횡포를 막음으로써 유통단계의 축소로 소비자에게 값싼 축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의 이익이 증대 될 뿐만 아니라 수입양계산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양계협동조합들은 타축종 조합에 비하면 어려운 경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에 속한다. 그리고 거대한 조직력과 자금으로 농가가 어려울 때 십시일반으로 양계산물 소비운동에 앞장 서준다면 난관을 이겨내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그 예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작된 북한동포에게 계란보내기 운동은 정말로 역사적인 업적이 아닐 수 없다.

민족의 화합에 한몫을 하였고 과잉생산으로 실의에 빠진 양계농가에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짧은 시간에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의 양계조합의 집하장 종사원들의 밤샘작업에 감사한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이 앞장선다면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의 장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기관과 양계협회 그리고 협동조합이 의기투합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과 단체 및 양계조합은 항상 서로 신뢰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돈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